

한·일 전통궁시(弓矢) 비교연구*

- 편전(片箭)과 구다야(管矢)를 중심으로 -

이헌정**
rgunpower@naver.com

<目次>

- | | |
|--------------------|--------------------------|
| 1. 서론 | 2.3 구다야에 관한 문헌검토 |
| 1.1 연구목적 | 2.4 구다야에 관한 구전 |
| 1.2 선행연구 | 2.5 『신명불심궁지서』 개괄 |
| 2. 본론 | 2.6 『신명불심궁지서』와 편전사법과의 비교 |
| 2.1 편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 분석 |
| 2.2 편전에 대한 역사적 기록 | 3. 마치며 |

主語語: 궁술(archery), 궁도(Kyudo), 편전(Pyeonjeon), 애기살(Eagisal), 구다야(Kudaya), 신명불심궁지서(Shinmei husin kyujisyo)

1. 서론

1.1 연구목적

편전(片箭)¹⁾이란 통상보다 짧은 화살에 반 원통형의 관을 절반으로 잘라 덧대어서 쏘는 특수한 형태의 화살이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편전이 전장에서 널리 쓰였기에 그 기록 또한 다수 존재 한다. 이에 현대에 와서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많이 확보하여 한국 전통 활쏘기의 하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²⁾ 그러나 편전을 쏘는

* 이 연구성과는 2017년도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편전은 애기살이라 불리기도 한다. 정진명의 『한국의 활쏘기』에서는 애기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전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하겠다. 또한 편전과 구다야를 시연하는 장면은 <그림1>, <그림2>와 같다.

2) 편전이 등장한 영화나 드라마, 편전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한 보도 자료와 다큐 또한 그 수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편전이 등장한 작품들 몇 가지를 부록에 소개해 놓았다.

방식, 사법(射法)에 대한 고증은 역사적 기록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내에 편전에 대한 많은 사료가 존재함에도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전은 전통 공술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면서도, 사법의 형태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불충분 하여, 자의적으로 구축된 형태가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편전과 유사한 형태의 화살로 구다야(管矢)가 있으며 편전과 마찬가지로 통상보다 짧은 화살을 반 원통형의 관에 넣어서 쏜다. 그러나 구다야의 역사적 유래를 알아보기에는 사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적다. 따라서 일본의 구다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神明불심궁지서(神明不審弓之書)』라는 책에서는 구다야에 대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어, 일본의 구다야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편전사법의 고증에도 활용할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의 편전과 일본의 구다야에 대한 자료를 각각 정리한 후 그 역사적인 실체와 의의를 논하며, 『神明불심궁지서(神明不審弓之書)』에 나타난 구다야 사법을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편전 사법과 비교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그림1> 유영기(2009)『편전』영집공시박물관 <그림2> 吉田熊安의 구다야 시연장면)

3) 吉田レイ(2005)『弓の道』BABジャパン、p.233 요시야스(吉田熊安)의 유고(遺稿)

1.2 선행연구

편전에 대한 연구로는 최형국의 「조선시대 보이지 않는 병기의 비밀-편전(片箭)」⁴⁾이 있다. 최형국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용원필비(戎垣必備)』의 기록을 바탕으로 편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으며, 특히 편전의 위력과 치명적인 비밀병기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편전사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전에 대해서 언급한 저서로는 먼저 이중화의 『朝鮮의弓術』이 있다. 『朝鮮의弓術』은 현재 한국의 전통궁술인 국궁사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조선 고유의 사법을 기술함에 있어, 유엽전(柳葉箭)이라는 습사(習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화살에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편전사법에 대해서는 이미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자 자신 또한 문자로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술 하고 있다.

조선에궁시(弓矢)가잇는지임의여러천년이오. 싸라서궁시의발달(發達)은. 여러나라를압도(壓倒) 하얏나니. (중략)털전은털전의묘법(妙法)이. 편전은편전의기술(奇術)이. 류엽전은류엽전의신기(神技)가. 다싸로싸로잇섯을것이라. (중략)이러한 묘법,기술,신기를입으로전하고. 마음으로주엇을싸름이오. 문자(文字)로전함이. 잇지못함은. 이실로유감(遺憾)이라안이치못할지다. 5)

다음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기능보유자인 유명기의 저서 『우리나라의 弓道』⁶⁾가 있다. 유명기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용원필비』 등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편전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화살을 통에 넣어 발사한다는 기본적인 과정을 언급한 것에 그쳤으며 사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편전사법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진명의 『한국의 활쏘기』에서 기술되었다. 정진명은 편전을 쏠 때 취해야할 줄손, 각지 손의 위치와, 화살을 통아에 넣는 형태, 통아 끈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정진명은 이러한 서술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편전사법에 대해 기술함을 밝히고 있다.

예부터 전해오는 얘기살 쏘는법(片箭射法)은 현재 알 수 없다. 『조선의 궁술』을 편찬할 당시에도 유엽전 쏘는 법 한 가지만 전한다고 탄식한 것(37쪽)으로 보아 그때에도 이미 얘기살 쏘는 법은 끊어진 모양이다.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4) 최형국(2007)「조선시대 보이지 않는 병기의 비밀-편전(片箭)」『인물과 사상』108, 인물과 사상사
5) 이중화(1929)『朝鮮의弓術』조선궁술연구회, p.37
6) 유명기(1991)『우리나라의 弓道』화성문화사, pp.166-169

그러나 사물이 남아있는 한, 그것을 운용하는 원리를 그 사물에서 이끌어낼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서 한 가닥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얘기살도 활로 쏘는 것이니 실제로 쏘아보면 그 원리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중략)내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좀더 깊이 연구한 분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기다려서 얘기살 쏘는 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7)

구다야를 언급한 저서로는 요시다 레이(吉田レイ)의 『활의 길(弓の道)』이 있다. 『활의 길』에서 또한 「管矢に関する文献のはっきりしたものがなく、言うなれば口伝に属するものなので文献を求めることが間違いなのだが(구다야에 관한 문헌은 확실한 것이 없기에, 말하자면 구전에 속하는 것이므로 문헌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8)와 같이 문헌자료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모두 기록에 의거한 편전사법의 고증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명불심궁지서』에서 볼 수 있는 구다야에 대한 그림과 기록을 선행연구의 기술들과 비교 분석하며 기록에 근거한 편전사법의 고증에 일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편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

편전은 통상 화살길이(약 80cm)의 절반 이하의 짧은 화살로, 활시위를 완전히 당겨서 쏘기 위해서는 반 원통형의 관9)을 덧대어서 쏘아야 한다. 길이가 절반이기 때문에 무게도 통상의 화살에 비해 가볍다. 따라서 화살의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살을 쳐내거나 피하기가 어려웠으며 통상의 화살보다 멀리 날아간다. 또한 편전은 속도와 비거리뿐만 아니라 관통력 또한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화살은 멀리 날리는데 유용하며, 무거운 화살은 위력을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편전의 경우는 무게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속도와 위력 두 가지 모두 우수하게 되는 것이다.

7) 정진명(1999)『한국의 활쏘기』확민사, p.315

8) 吉田レイ(2005)『弓の道』BABジャパン、p.232, 『弓の道』는 요시다 레이가 감수한 책이나 본고에서 인용한 부분은 요시다 레이의 부친인 요시다 요시야스(吉田能安)의 유고(遺稿)이다.

9) 한국에서는 이를 통아(桶兒)혹은 덧살 이라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편전의 경우 통아라 부르며 구다야의 경우에는 관(管)이라 칭하겠다.

또한 화살 자체의 위력과 함께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통상 화살길이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며, 적들이 화살을 노획해도 편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편전은 술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도가 통상의 화살에 비해 높다. 그 이유는 관에 덧대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발사 시 화살이 관에서 이탈하거나, 관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술자의 활을 쥐고 있는 손에 날아올 확률이 높다. 또한 술자를 손에 날아오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전을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위험도는 따라 올 수밖에 없다. 10)

2.2 편전에 대한 역사적 기록

편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어렵지 않게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양 또한 대단히 많다. 본고에서는 이중 『청장관전서』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중 몇 가지를 인용하여 편전의 유래와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片箭。惟我國有之。故與中國之鎗。日本之銃。天下無敵。按金中京留守強伸。爲元兵所圍。兵器已盡。以錢爲鏃。得元兵一箭。截以爲四。以筒鞭發之。此片箭之始也。

편전은 다만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서 중국의 창이나 일본의 총과 함께 천하무적이 되었다. 상고하건대, 중경유수(中京留守) 김강신(金強伸)이 원병(元兵)에게 포위되어 병기가 다 떨어졌을 때 엽전으로 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원병의 화살 하나를 얻으면 넷으로 잘라서 통편(筒鞭)으로써 쏘았으니, 이것이 편전의 시초이다.11)

恭愍王十九年庚戌正月, 太祖以騎兵五千、步兵一萬, 自東北面踰黃草嶺, 行六百餘里, 至雪寒嶺, 又行七百餘里, 渡鴨綠江。(중략) 時太祖不御弓矢, 取從者弓, 用片箭射之, 凡七十餘發, 皆正中其面, 城中奪氣。

공민왕 19년(1370) 경술 정월, 태조는 기병 5천 명과 보병(步兵)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東北面) 으로부터 황초령(黃草嶺)을 넘어 6백여 리(里)를 행진하여 설한령(雪寒嶺)에 이르고, 또 7백여

10) 편전의 특징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인터넷 자료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음 자료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편전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이덕무(1793) 『靑莊館全書』 55권, p.521
 유영기(1991) 『우리나라의 弓道』 화성문화사, pp.166-169
 정진명(1999) 『한국의 활쏘기』 학민사, pp.311-319

11) 이덕무(1793) 『靑莊館全書』 55권, p.521

리를 행진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건넜다. (중략)이때 태조는 활과 살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수중(隨從)하는 사람의 활을 가져와서 편전(片箭)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쏘았다. 12)

“片箭禦敵所重，故武科試取及三軍甲士、成衆愛馬，常時習射，並令肄習，至於外方侍衛牌、營鎮屬軍官、騎船射官，莫不皆然。獨於春秋都試甲士試取，則不用，誠爲未便。自今都試及甲士試取，并用片箭，其常時肄習及試取，用木鏃片箭”

從之。

“편전(片箭)은 적을 막는 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무과(武科)에서 시험해 뽑은 자와 삼군 갑사(三軍甲士)와 성중 애마(成衆愛馬)가 일상 활쏘기를 연습할 때에 편전을 아울러 연습하게 하였삽고, 외방 시위패(侍衛牌)와 영(營)·진(鎭)에 소속된 군관과 병선(軍船)을 타는 활쏘는 군관들 까지 모두 그렇지 아니함이 없사온데, 홀로 춘추 도목 시험에 갑사를 시험해 뽑는 데만은 쓰지 아니함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오니, 이후부터는 도목 시험과 갑사를 시험해 뽑는 데에도 아울러 편전을 쓰게 하고, 그 일상 연습할 때와 시취(試取)할 때에는 목촉(木鏃) 편전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³⁾

“有一倭客用柵木作弓，以松木作桶兒，以大針爲鏃，削竹二寸爲片箭戲射。館人詰問其學處，答云：‘前到富山浦，學於其浦軍人。’以此觀之，其漸傳習可慮。今後令各浦軍人客人，一處毋得習射片箭。”

從之。

“한 왜객(倭客)이 싸리 나무(柵木)로 활을 만들고, 소나무로 통아(桶兒)를 만들고, 큰 바늘로 화살촉을 만들고, 대나무(竹)를 2촌(寸)쯤 깎아서 편전(片箭)을 만들어 장난 삼아 쏘기에, 관인이 그 배운 곳을 힐난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에 부산포(富山浦)에 왔을 때 그 포구의 군인에게서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차츰 전습(傳習)할 염려가 있사오니, 금후로는 각포의 군인으로 하여금 객인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편전을 쏘는 것을 익히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⁴⁾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편전은 고려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이미 정착되어 있었으며,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군의 무기로써 중요하게 여기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편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조선에서는 편전을 중요한 무기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편전이라 할 수 있는 구다아(管矢)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많지 않으며 실체 또한 모호하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12) 『태조실록』1권, 총서 47번째 기사

13) 『세종실록』28권, 1425년 4월 21일 5번째 기사

14) 『세종실록』76권, 1437년 3월 6일 2번째 기사

2.3 구다야에 관한 문헌검토

구다야에 대한 특징과 그 유래를 언급하는 책으로는 요시다 레이(吉田レイ)의 『활의 길(弓の道)』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管矢の特質は、僅か七寸程度の短小な征矢を腰に隠し持って、所謂忍び矢を、半円形樋型の管の溝を通して射放つ射術で、敵の意表を衝く、その威力その効果は別段のものであったらしい。しかし、邪道の匂い芬々たるを禁じ得ない。

구다야의 특질은 겨우 7촌정도의 짧은 전투용 활을 허리에 숨겨서 치는, 소위 시노비야를 반원형통형의 관을 통하여 쏘는 사술로, 적의 의표를 찌르며 그 위력, 그 효과는 매우 특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악한 냄새가 분분한 것은 금할 길이 없다.¹⁵⁾

또한 위의 글을 쓴 요시아스(吉田能安)는 방송¹⁶⁾에 출연하여 <그림2>와 같이 구다야 사법을 시연하였다. 『활의 길』의 서술과 <그림2>를 보면 구다야는 한국의 편전과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요시아스가 속했던 헤키류 지쿠린파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활의 길』에서 말하는 구다야의 유래이다.

さて伝えられるところ、管矢の創始者は日置弥左衛門と言われているが、その年代及び系図など詳細を知るのは困難である。しかし、管矢は日置流諸術の免許皆伝列外のもので、所謂裏芸と言うべき要前の一種であることに間違いなからう。伝え聞くところによると、彼の源平壇の浦の戦い(1185年)平家の能登守教経が源氏軍の佐藤継信を討ち取ったのが管矢であったかとか、又1193年5月、富士の巻狩の敵討ちで有名な曾我兄弟の父河津三郎(御前角力の勝者)が、工藤祐経(御前角力の敗者)に射殺されたのが管矢であったと言う。これらの年代を総合して推測すれば、管矢の起源は今から八百年前の頃と判定出来るのである。

15) 吉田レイ(2005)『弓の道』BABジャパン、p.234 요시아스(吉田能安)의 유고(遺稿)
16) 「本年八月二十一日にはNETアフタヌーンショーに、八月五日には富士テレビの武芸百般タイトル御前試合に出演したが、これへの世間の反響には予想外のものがあった。禁制を破ってのショーへの出演が色々の成果をもたらし、特に古武道保存運動の上に大きくプラスしたことを心中悦ぶと共に、老いたりとも昔年の修行がまだまだ光を放っていると、八十の老翁密かに意を強く致しおる訳である(本년 8월21일에는 NET에프터눈쇼에서, 8월5일에는 후지TV의 무예백반 타이틀 어전시합에 출연했는데, 이에 대한 세간의 반향은 예상외의 것이었다. 금제(禁制)를 깨고 쇼에 출연한 것이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고무도 보존운동에 큰 도움이 된 것이 기뻐지며, 늙은 몸으로나마 예전의 수행이 아직 빛을 발하고 있다고, 팔십의 노옹이 조용히 그 의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요시아스는 방송에 출연하여 구다야를 시전하는 등 구다야를 세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한국의 편전이 각종 방송 콘텐츠에 등장할 정도로 대중성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구다야의 창시자는 헤키야자에몽이라 하는데, 그 연대와 계보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내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구다야는 헤키류의 여러 술법의 면허개전열외의 것으로, 소위 겐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전 활쏘기의 한 종류인 것은 틀림없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유명한 겐페이 단노우라의 전투(1185년) 다이라가문의 노토노가미노리쓰네가 미나모토씨군의 사토쓰구노부를 쏘아 맞힌 것도 구다야였다고거나, 또한 1193년5월, 후지의 사냥대회에 유명한 소가 형제의 아버지 가와즈사부로(어전각력의 승자)가, 구도 스케쓰네(어전각력의 패자)에게 사살된 것이 구다야였다고 한다. 이들의 연대를 총합해서 추측하면, 구다야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쯤 이었다 판정할 수 있다.¹⁷⁾

요시다는 다이라노 노리쓰네(平教経)와 구도 스케쓰네(工藤祐経)가 구다야를 사용하였기에 최초로 사용된 시기를 1200년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문에도 나오듯 위의 두 경우 모두 구전으로만 전달될 뿐이며 실제로 구다야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창시자는 헤키 야자에몽(創始者は日置弥左衛門)’이나 ‘구다야는 헤키류제술의 면허개전열외의 것(管矢は日置流諸術の免許皆伝列外のもの)’과 같이 구다야의 창시와 전승이 헤키류(日置流)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그 사용 연대는 14세기 이후가 되기 때문에 1200년경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¹⁸⁾

그러나 요시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구전되어온 구다야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전되어온 구다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4 구다야에 관한 구전

구다야에 관한 구전으로는 먼저, 일본 전통극중 하나인 가구라(神樂)의 야시마 전투(屋島合戦)가 있다. 야시마 전투 중에서도 구다야는 『활의 길』에서 언급한, 노리쓰네(教経)가 사토쓰구노부(佐藤継信)를 사살(射殺)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矢受けの名人として名高い継信を相手に劣勢となった能登守。しかし、平家方にも加勢が加わります。自らこしらえた管矢を持って現れたのは、わっぱの菊王丸でした。菊王丸の管矢を手にした能登守は形勢逆転、ついに継信は射抜かれてしまいます。

17) 吉田レイ(2005)『弓の道』BABジャパン、pp.233-234 요시야스(吉田能安)의 유고(遺稿)

18) 「近世射術の源泉ともいわれる日置流はその源を室町時代の日置弾正正次に発している。正次は室町中期の人で日置流の流祖である(근세 사술의 원천이라 불리는 헤키류는 그 기원을 무로마치시대의 헤키단조 마사쓰구로부터 출발한다. 마사쓰구는 무로마치 중기의 사람으로 헤키류의 창시자이다)」松尾牧則(2013)『弓道その歴史と技法』公益財団法人日本武道館、p.142

화살잡기의 명인으로 유명한 쓰기노부를 상대로 열세가 된 노토노가미. 그러나 다이라측에도 힘이 더해지게 됩니다. 직접 고안한 구디아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왓파의 기쿠오마루 였습니다. 기쿠오마루의 구디아를 얻은 노토노가미는 형세역전, 이윽고 쓰기노부는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19)

쓰기노부는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아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노리쓰네는 보통의 화살로는 쓰기노부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이때 기쿠오마루(菊王丸)가 가져온 구디아를 사용하여 쓰기노부를 쓰러뜨린 것이다. 그러나 가구라 단체에 확인한 결과 극중에 언급된 구디아는 『신명불심궁지서』나 『활의 길』에서 말하는 화살에 관을 덧대어서 쏘는 방식이 아니었다. 다음은 필자가 가구라 보존회에 구디아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질의하고 답신을 받은 내용이다.

2012년9월6일 송신

能登守が佐藤継信を射殺するときに管矢を使ったと神楽では描いてますが、管矢はどういうもののでしょうか?

가구라 에서는 노토노가미가 사토쓰기노부를 사살할 때, 구디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구디아는 어떤 것입니까?

2012년9월6일 답신

私も聞いたことしかありませんが。

矢束の部分が管(穴があいている)になっていて、飛んで来た矢束を手でつかんでも、管の中に矢じりのついた矢はその勢いそのまま飛んでいく。

矢束の部分が二重構造になってたようです。

(ストローの中に箸が入っている感じ?)

正しいかは定かではありませんが、ご質問のお返事です。20)

저도 들은 이야기 밖에 모릅니다만.

화살대 부분이 관(구멍이 뚫려있음)으로 되어있어서, 날아온 화살을 손으로 잡아도, 관 속에 화살 축이 붙어 있는 화살이 그대로 날아오게 됩니다.

화살대 부분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빨대 안에 젓가락이 들어있는 형태?)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에 대한 답신입니다.

19) 『長下田神楽保存会』

<http://www.geocities.jp/nagetakagura/yashima.html>(2017년 4월9일 열람)

20) 2012년 9월6일 오모리 가구라 보존회(大森神楽保存会)의 사무국의 직원과 필자와의 이메일 내용이다. 나게타 가구라보존회(長下田神楽保存会)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오모리 가구라 보존회와 연락을 하였다.

필자의 질문에 답신을 한 오모리 가구라 보존회(大森神樂保存会)는 날아오는 화살을 잡아내는 순간 관성력에 의해 안쪽에 있던 화살이 분리되어 날아가는 ‘분리식 화살’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출처는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이와 같은 ‘분리식 화살’ 형태의 구다야는 겐페이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도야마의 전설(富山の伝説)』에 나오는 「여자 사무라이 대장(女のさむらい大將)」에서도 등장한다.

この女のさむらい大將は、城の土居にしげっている竹を切って、手ごろな筒を作り、飛んでくる矢が、その中を通るしゅんかん、すばやく矢を横にしてとらえ、たくわえていたのです。

「さて、どうしたらこの女のさむらい大將をうちたおすことができるか。」

と考えつづけた結果、できたのが管矢です。

管矢というのは、矢が竹の管の中に入っていて、手でとらえて도、管の中の矢が飛び出し、とらえようとした人にささるしくみのものです。

「さあ、これで矢をとらえる心配はないぞ」

「とらえたと思った矢は、管の中をすべって、とらえようとした者にあたるか、となりのものに当たるか、どちらかだ。」

이 여자 사무라이 대장은 성둘레 흙담에서 자라고 있는 대나무를 잘라 손에 적당히 잡힐만한 통을 만들어 날아오는 화살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순간 재빨리 화살을 옆으로 비틀어 잡아 화살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자 사무라이대장을 쓰러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결과가 구다야였습니다.

구다야 라는 것은 화살이 대나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잡아도 관 속의 화살이 튀어나와 잡으려고 한 사람을 찌르게 되는 화살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화살을 잡힐 염려는 없다」

「잡았다고 생각한 화살은, 관을 지나 잡으려고 한 자에게 맞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맞거나 할 것이다」

「여자 사무라이 대장」 이야기는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이 옛추(越中)지역을 공략할 때 있었던 일화로, 성을 지키고 있던 여자 장군이 날아오는 화살을 잡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에스기 측에서 구다야를 쏘았다는 내용이다. 위 인용문에서는 「管の中の矢が飛び出し」와 같이 구다야가 분리식 화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즉 가구라의 야시마 전투에 등장한 구다야와 「女のさむらい大將」에 등장한 구다야가 동일한 형태로 구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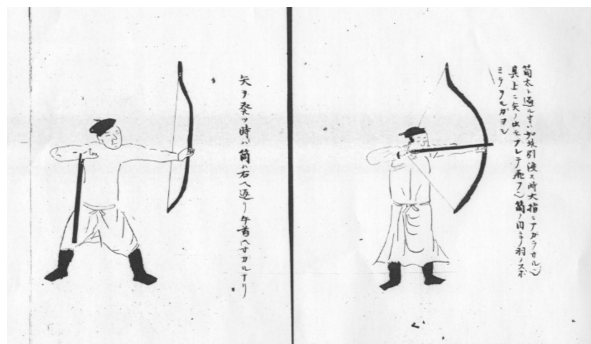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구다야는 문헌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존재하는 문헌자료들도 그 기반을 구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전으로 전해지는 구다야는 그 형태가 한국의 편전과 같이 관을 덧대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분리식 화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고 그 형태가 일관된 한국의 편전과 비교했을 때 구다야는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언급할 『神明불심궁지서(神明不審弓之書)』는 18세기말에 관찰된 구다야 사법을 기록 한 것이며, 그것을 그림과 문자로 자세히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 책에 나온 기록과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편전사법을 비교 검토 하겠다.

<표1> 편전과 구다야를 비교정리

| | 형태 | 근거자료 |
|---------|--|-----------------------|
| 편전(한국) | ① 관을 덧대어 사용하는 방식 | 조선왕조실록, 청장관전서 등의 문헌기록 |
| 구다야(일본) | ① 관을 덧대어 사용하는 방식 ② 화살촉이 분리되어 나가는 방식 | 가구라, 전설 등의 구전 |

2.5 『神明불심궁지서』 개괄

구다야의 사법과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책으로는 『神明불심궁지서(神明不審弓之書)』가 있으며 대략적인 책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3> 『神明不審弓之書』 마이크로필름 0418

본 연구에서 다루는 『神明불심궁지서』는 明治2년(1869년)에 옮겨 적은 것으로, 원본은 寛政3년(1791년)에 작성되었다. 위 책에서는 화살을 장착하는 방법과 함께 발사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림3>과 같이 화살을 발사한 후 화살에 덧대었던 통아가 손목에 남아있는, 한국의 편전과 동일한 방식의 구다야 입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을 쏘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 중국의 복식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 모두 당인의 그림을 빌려 그린 것이며, 시위를 당기는 형태와 오른손의 모양 등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 본서에서는 반궁으로 그려졌던 활을 지금 본조(本朝)의 활의 형태로 고쳐서 보게끔 하였다(右何レモ唐人ノ図ヲカリテ画キタルハ、ヒキ渡シタル形又ハ發タル馬手ノ軀ナド大いニ異ナル所アリ本書ニハ弓モ半弓ニ画キタルヲ今本朝ノ弓ノ形ニ直シテ見ルニ使ナラシム)」²¹⁾와 같은 서술이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행해지는 구다야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관찰된 형태를 옮겨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헤키류 에서는 육촌, 팔촌으로 정한다(日置流ニハ六寸八寸ニ定レモ)」²²⁾와 같이, 일본의 전통궁술 유파중 하나인 헤키류(日置流)를 언급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정한 구다야의 크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통아를 덧대는 방식의 구다야는 일본 안에서도 존재해 왔으며 구다야가 무엇인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神明불심궁지서』와 편전사범과의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언급되는 편전사범과 『神明불심궁지서』에 나타난 글과 그림을 비교 분석하며, 편전사범 중에서도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통아에 화살을 넣을 때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화살에 달린 깃은 일반적으로 3장이며 화살을 시위에 끼울 때는 깃 두 장을 활에 비스듬히 붙일 것인가, 아니면 깃 한 장을 활에 정면으로 붙일 것인가의 두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그림4> 화살을 시위에 끼웠을 때의 두 가지 경우(오른손잡이 기준)

21) 『神明不審弓之書』東北大學 마이크로필름 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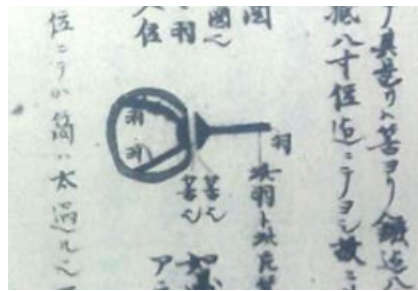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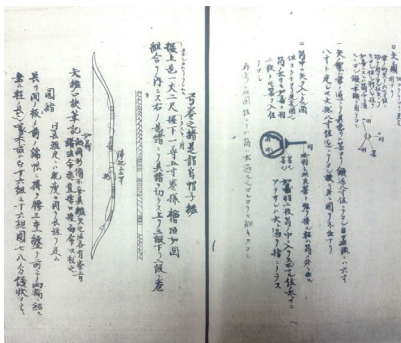
22) 『神明不審弓之書』東北大學 마이크로필름 0420

이 경우 <그림4>의 왼쪽과 같이 깃 두 장을 활에 비스듬히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위에 끼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편전을 시위에 끼울 때는 오른쪽과 같은 방향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활쏘기』의 구절을 인용하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시위에 오너를 먹일 때, 보통 유엽전은 마루깃이 바깥을 향해야 한다. 반대로 끼우면 깃이 활의 몸체를 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기살은 유엽전과 반대로, 마루깃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끼워야 한다. 왜냐하면 덧살의 홈에 두 깃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또 덧살이 있기에 마루깃이 출전피를 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기살은 다른 화살과 달리 오너를 먹이는 방향이 정반대이다.²³⁾

이와 같이 통아를 덧댈 경우에는 화살이 통아의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활에 화살 깃이 정면으로 닿을 일이 없다. 그렇기에 보다 통아에 넣기 쉬운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방향은 <그림3>의 오른쪽과 같은 방향이 된다. 즉 『한국의 활쏘기』에 의하면 통아에는 화살 깃이 한 장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神明불심궁지서』에서는 통아에 화살 깃 두 장이 들어간 형태의 그림과 서술이 보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5> 『神明不審弓之書』마이크로필름 0420 <그림6> 그림3의 화살 깃 부분을 확대

<그림6>을 보게 되면 통아에 화살 깃 두 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 정진명(1999)『한국의 활쏘기』학민사, p.318

如圖羽二枚筒ノ中に入テスポマル位ノ太トサニアラサレハ大ト過テ指ニノラス

그림과 같이 깃 두 장을 통에 말아 넣을 정도의 두께로 하면 너무 커서 손가락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림을 통해서 화살 깃 두 장이 통이에 들어가 있음을 명시 하면서도 이를 설명하는 문장에 서는 두 깃을 넣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위의 인용문에서 이어지는 문장이다.

再考ニ此圖位ニテハ筒ハ太過ルベシコレヨリモ細キガヨシ

재고하건데 이 그림정도의 통은 너무 두껍다. 이보다 얇은 것이 좋다.

두 깃을 넣는 것에 대해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그 해결방법으로는 화살 깃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 통을 얇게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화살 깃의 방향은 통상의 화살과 같으며,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정진명의 『한국의 활쏘기』에서와 같이 편리성을 이유로 화살 깃 방향을 바꾸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한국의 활쏘기』에서 언급된 화살 깃 방향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보다 이전에 기록된 형태에 대해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마치며

본고에서는 먼저 편전과 구다야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그 역사적 실체를 먼저 검토하였다. 『청장관전서』에 의하면 편전은 고려 말기에 처음 사용되었고,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살펴본 바, 조선 초기에 이미 무과의 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중요하게 여기에 지는 화살이었기에 외부에 알려지는 것 또한 경계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사료에 근거하여 알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편전의 실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구다야는 구전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 이며 그 형태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에서 구다야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지 않은 자료 중에서도 『신명불심궁지서』는 사법의 형태를 그림과 글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사료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편전사법에 대한 기록의 부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편전사법 중에서 화살 깃의 방향이 위의 책과 다름을 지적하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했던 편전사법 연구에 사료를 근거로 한 고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편전과 구다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비교가 중심이 되었으며, 실체의 비교에 대해서는 사법에 대한 비교 중에서도 화살 깃 방향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실체의 비교를 위해 편전, 구다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입수하여 검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이중화(1929)『朝鮮의弓術』조선궁술연구회, pp.36-40
 이덕무(1793)『靑莊館全書』55권, p.521
 유영기(1991)『우리나라의 弓道』화성문화사, pp.166-169
 정진명(1999)『한국의 활쏘기』학민사, pp.311-319
 최형국(2007)「조선시대 보이지 않는 병기의 비밀-편전(片箭)」『인물과사상』108, 인물과 사상사, pp.197-205
 日本武道学会(2010)『弓具の雑学事典』スキージャーナル, pp.18-77
 松尾牧則(2013)『弓道その歴史と技法』公益財団法人日本武道館, pp.142-143
 富山県児童文学研究会(1981)「女のさむらい大将」『富山の伝説』日本標準, pp.237-240
 吉田レイ(2005)『弓の道』BABジャパン, pp.231-236
 저자불명(1869)『神明不審弓之書』借写, 東北大学 마이크로필름(0416-04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
 国文学研究資料館(<https://www.nijl.ac.jp/>)

논문투고일 : 2017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2일
 2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17일

【附 錄】



『불멸의 이순신』2004년 (위)
『신기전』2008년 (아래)



『추노』2010년 (위)
『최종병기 활』2011년 (아래)



『장금이의 꿈』 2007년



『왕의 얼굴』 2014년



『역린』 2014년

〈要旨〉

한·일 전통궁시(弓矢) 비교연구

- 편전(片箭)과 구다야(管矢)를 중심으로 -

이헌정

편전(片箭)은 통상보다 짧은 화살을 통에 넣어서 발사하는 특수한 형태의 화살이다. 한국의 경우 편전에 대한 사료가 많으며 그 유래와 역사적 의의를 알아보기에도 용이하다. 그러나 편전을 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전승 또한 끊어졌기에 편전사법을 고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편전과 같은 형태의 화살을 구다야(管矢)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다야에 대한 사료는 많지 않으며 구전되어 오는 것이 많기에, 그 유래와 역사적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또한 구전되어 오는 구다야는 그 형태가 ‘통에 넣어서 쏘는 화살’이 아닌 ‘분리식 화살’이기에 그 실체 또한 명확하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신명불심궁지서』라는 책은 구다야 사법을 그림과 글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법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한국의 편전사법을 고증함에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어 현재 행해지는 편전사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살을 통에 넣어 활시위에 걸었을 때, 화살 깃의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comparative study on traditional Archery of Korea and Japan

- Focus on Pyeonjeon(片箭) and Kudaya(管矢) -

Lee, Heon-Jung

Pyeonjeon is a unique type of arrow. In order to shoot it, one needs to put short arrow-the pyeonjeon into a pipe. In Korea, there are various records regarding this unique arrow, making it available to study on its origin and historical significance. However, in case of specific archery method, no detailed records exist nor any remains are transmitted from the past.

In case of Japan, there existed similar type of arrow which is called as Kudaya. However, there are only few records related to Kudaya, making it difficult to research into it.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Kudaya is obscure, since Kudaya is mainly transmitted down by words, and the form of Kudaya in those words is rather ‘a separative arrow’ than ‘an arrow in the pipe’. In this situation where we lack historical materials, the book Shinmei husinyuminosyo explains the archery method of Kudaya by pictures and writings. This will surely suggest clues to explain the archery method of Korean Pyeonjeon. By comparing Pyeonjeon with Shinmei husinyuminosyo, we figured out that the difference of Pyeonjeon and Shinmei husinyuminosyo lies in the direction of fletchings, when the arrow is put into a pipe and strung by the bowstring.